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31권 21호(가해) 2011.4.17

[묵상]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시며,
정해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을 고소하는 이도,
팔아넘길 이도,
매질하며 조롱하는 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도,
십자가형을 선언할 빌라도도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에 걸음을 깔아드릴 이도,
손에 팔마 들고 환호하는 이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드릴 시몬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백인대장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좋은 역할에 쓰시겠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박문규 프란치스코 & 최옥선 클라라
특전미사	(생)성호재 시몬&영님 엘리사벳&유진 로렌스, 이요세피나
주 일	(연)마이클 레니안 몬시뇰, 김완태 다미아노, 박준구 요한, 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이분옥 안젤라, 박송희, 안준환 미카엘, 엄은섭 도로테오, 소수연 안나, 윤홍중
낮 미사	(생)엄세종 그레고리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꼬,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병옥 율리아 가정,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가정, 이덕철 루카 & 이민상 요한, ME 제67차 수강생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뺨는 마디마디 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뿔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복음 마태오(Matthew) 26,14-27,66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호산나	10	
봉헌	257	258	259
성체	372	303	285
파견	154	152	152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1991년 추기경회의에 모인 추기경들의 건의에 따라, 이미 몇몇 주교회의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제정했듯이, 모든 나라들이 매년 생명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날의 기념은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인간 생명이 어떤 단계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 개인의 양심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 인간 생명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심각한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때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때때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생명의 다른 국면들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86).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영적인 예배(로마 12,1 참조)의 한 부분인 생명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경축해야 한다. 매일의 삶은 타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생명의 선물에 대한 진정 책임있는 응답과 수용이 될 것이며, 이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진정어린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이타적이고 관대한 행동들 속에서, 그리고 대개 겸손하고 감추어진 여러 다른 행동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성인, 젊은이와 노인, 건강한 사람과 병자들이 그러한 일을 해내고 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풍요롭고 사랑에 찬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인 행동 역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영웅적인 행위들은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장 장엄한 경축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요한 15,13 참조)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 신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보여주시며, 생명이 진지하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어떻게 그 충만함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다.

이러한 특출한 순간들보다 훨씬 위에 매일의 영웅적 행위가 있다. 이 영웅적 행위는 크고 작은 나눔의 행위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들이 진정한 생명의 문화를 이룩해 낸다.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다. 이것은 때로는 다른 희망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지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모든 훌륭한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소리없는, 그러나 큰 힘을 지닌, 감동적인 신앙의 증거 역시 매일의 영웅적인 행위에 포함된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어머니들이다. (◆계속)

“ 함께하는 고통 ”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비우고 낮추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고통 속에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과의 사랑도 잠깐이었습니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믿음이 아닌 이기심과 배신으로 점철된 인간세상의 쓴맛을 보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그만큼 누구보다 고통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실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苦海), 예수님도 바다를 없앨 수는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의 바다에 폭 잠겨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스런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 위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힘들다면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을 주려하셨으나, 세상에 만연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것이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이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고, 신도불이 즉 제 땅에서 난 음식을 먹는 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한 약을 먹는대거나, 먼 곳으로 요양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은 원인에서 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함께 찾으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지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하려다 고통받고,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의 이유야 어쨌든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옆에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이 고통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받으심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로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더 순수하고, 누구보다 더 억울하고, 누구보다 더 가엾은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 하나 없이, 오직 사랑 때문에, 가장 고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통은 녹아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삶의 포기라는 문턱까지 가야 했을 때라도, 나보다 먼저, 나보다 더 큰 고통의 길을, 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나의 고통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함께하는 고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미사 없습니다.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제5독서자 제7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남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성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수난을 앞두고 우리는 특히 성 금
요일에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님
의 죽음의 신비속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4월21일 오후 8시
(밤 10시부터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22일 오후 8시
(오전 6시까지 수난감실 성체조배)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4월23일 오후 9시
* 각자 초(집에 있는 초)를 지킴해주십시오.

◆ 부활 대축일 미사(4월24일) : 오전 11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를 잘 준비합니다.

- 희생과 보속, 선행 등으로 모아진 사순절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부활대축일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7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17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김유스티노 & 루치아 대표부부 ☎(213)458-3356

◆ 부활맞이 가족사랑 3인 농구대회

- 일시 : 4월24일 부활대축일 오후 2시, 성당 농구장
- 게임방식 : 토너먼트, Half Court *게임시간 : 12분
- 팀구성 : 24팀
- 준비물 : 팀별 농구공 *참가비 : 팀 \$20
- 선수구성 : 가족단위 3명이 한팀(본당교우 only, 선수구성
원 1명의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나야함)
- 상금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신청 : 4월17일(주일)까지, 성당현관 선수구성 표시판에 기입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성경통독 '창세기' 시작-새 수강생 받습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이 어느새 3복음서와 예언서를 모두 끝내고
4월28일(목)부터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새 수강생을 받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2회 강의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최재은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310)694-458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17일(주일) : 토런스 동2반(콩나물우거지국밥 \$3)
- 4월24일(부활대축일) : 전신자들에게 부활대축일을 축하
하는 친교점심으로 성모회가 소고기국밥을 준비합니다.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21(성 목요일)/22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서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하버 / 카슨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P.V.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옥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김상규	김성현	성전헌금	강순옥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김원호	김정희
	김옥찬	김원호	김정웅	김정희	김종선	남성철		남성철	노혜숙	문충한	민형기	배기엽	성낙호
	노혜숙	문충한	민형기	배기엽	배태임	성낙호		이상철	이희영	장정진	주대중	주영석	최수복
	송기철	송재훈	윤석구	이상철	이일길	이희영		최의수	황지영	한길선례			
	장정진	정병훈	주대중	주영석	최수복	최의수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2,975							합계 : \$1,465						
미사헌금 : \$2,950													

공지사항

◆ 요셉회, 야외14처 봉헌 기금마련 음식장터 안내

- 일시 : 4월30일 특전미사후, 5월1일 낮미사후 친교장
- 메뉴 : 점심식사 콩나물무국밥 특가 \$1
죽발, 돼지갈비, 삼겹살, 굴파전, 신도불이'꼭차'
- * 요셉회 회원들이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한국 고유의 음식을 정성드려 자신있게 만듭니다. 전신자들의 참여로 즐거운 음식장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 문의 : 권태만 실베스텔 요셉회장 ☎(310)989-9077
신중철 아브라함 요셉회총무 ☎(310)619-4343

주일학교 소식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일시 : 주일학교 종업식날로 연기(6월12일 주일)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고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신청마감 : 5월1일 * 신청비 : \$10(사진, 초)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참가비 : \$40(5월30일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제3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양수련회

- 일시 : 4월29일(금)~5월1일(주일)
- 주제 :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 장소 : PCCCI(빅배어 레이크)
- 대상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
- 회비 : \$110 * 문의 : ☎(714)200-9862 김정옥

◆ 예수후원회의 1일 영성 특강

- 주제 : *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가지 여행 * 기도란 무엇인가? *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 일시 : LA- 5월1일 오전 9시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오렌지- 4월30일 오전 9시 메리우드 센터
- 지도신부 : 정규환 레오 예수회 신부
- 참가비 \$20(점심 포함), 문의:정 도로테아 (818)321-9505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정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4/8(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병찬 안토니오 989-0366 4/16(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24(일) 낮 12시30분 델손 팍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4/11(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당 433-9075 4/15(금) 오후 7시30분
	2	이정수 헬레나 972-9193	안혜진 세레나 972-9193 4/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송 마이클 850-2822 4/9(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4/8(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4/1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종선 리비나 748-7323 4/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진영 프란치스코 544-4807 4/16(토) 오후 6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997-5388 4/9(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반나영 세실리아 293-5120 4/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 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부활맞이 농구대회	대축일미사 후
----------------	---------

떠돌한 이야기

불교 신자신가요?

10여 년 전 부처님 오신 날, 모처럼 화창한 휴일이라 가족끼리 강원도 치악산 상원사까지 등산하기로 하였다. 불교에서 기쁜 날이라 점심도 절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치악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매표소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런데 매표소 앞에 서 있던 직원이 갑자기 어디를 가느냐고 물길래 상원사에 간



‘유다의 입맞춤’ <1305년, 조토 디 본도네, 프레스코, 아레나 스크로베니 성당, 이탈리아 파도바>

다고 하였더니 나보고 “불교 신자신가요?”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리를 스쳐 간 생각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상원사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매우 짧은 순간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바로 “네.”라고 답이 나온 것이었다. 순간 나도 속으로 무척 놀랐다. ‘생각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바로 답이 나온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족은 입장료를 내지 않고 치악산 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치악산을 오르며 나는 애써 한때 불교 신자였다는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불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고 고등학교 시절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연등행사에 참석하곤 하지 않았던가? 그래 나는 불교 신자라고 해도 돼.’라면서 애써 나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입장시켜주지 왜 그런 것을 물어가지고, 매표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하는 이상한 논리로 비약하기도 했다.

오전 등산하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지만, 마침내 상원사에 도착하였다. 사찰에서는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맛있게 먹었고 아름다운 연등을 감상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하산하였다. 내려오는 길에도 아까 불교 신자라고 답했던 것이 계속 마음속에

걸렸다.

이때 떠오른 것이 베드로 성인의 마음이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중에 슬퍼 울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도 아닌 얼마 안 되는 입장료 앞에서 부인한 것 아닌가? 집으로 귀가한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의 신앙심

이 이 정도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언제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불교 신자도 되고 천주교 신자도 되는 알박한 신자라는 생각은 나를 슬프게도 했다.

이 일은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깊게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성호경을 굿고 식사를 하고 나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내 주변에서 식사하던 교수님들이 “천주교 신자였어? 나도 신잔데.” 하시면서 직장 내 누구가 신자인지를 알려 주었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 천주교 우를 알아내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마침내 2000년도에 세브란스 가톨릭 등잔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가톨릭 환우를 위해 파견 나온 수녀님을 도와드리며 등잔회의 노력과 병원 원목실의 배려로 이제 개신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우를 위한 미사를 매달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창걸 시몬 /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교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싶다면, 결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찾지 마십시오.

- 십자가의 성 요한 -